



성철 스님 유물 전시관이 있는 봉훈관(위), 성철 스님의 처소 고심당을 둘러보는 불자들

# 성철 스님 유물 한자리에

## 부산 해월정사, 메모 등 전시한 '봉훈관' 개관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과 같이 섬긴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은 모든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성철 스님이 하심(下心)하며 남긴 주옥같은 메모 남긴 봉암사 결사에 대한 회고, 법문, 주석 등을 직접 보며 가르침을 새길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됐다.

부산 청사포 해월정사(회주 천제)는 봉훈관(奉訓館) 3층 시월전(示月殿)에 성철 스님의 친필 수행영역 메모와 법문 초안, 애독하던 경전을 직접 볼 수 있는 전시관을 10월 31일 개관했다.

같은 날 성철 스님 추모법회와 함께 전시관을 개관한 천제 스님은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나 죽고 나면 모두 불살라 버리라’ 하셨습니다. 스님의 수행정신과 수좌·구도의 정신이 담긴 메모는 아무리 작아도

버릴 수 없었다”며 “성철 스님의 친필을 보고 깨닫고 공부하고자 바라는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월정사(海月精舍)는 30년 전 성철 스님이 주석하며 창건한 가람으로 넓은 바다와 밝은 월광이 불지(佛智)를 의미한다며 성철 스님이 직접 이름을 지은 사찰. 성철 스님이 말년에 수행처로 자주 머물던 장소이다. 성철 스님의 만상과 천제 스님은 “앞으로 해월정사는 봉암사 결사 및 응석, 동산 스님의 뜻을 이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노력하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터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성철 스님의 메모를 번역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할 계획이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시월전에는 성철 스님 진영과 응석, 동산 스님의 진영이 함께 걸려

있다. 용맹정진 3년 결사 규약, 총무원에 보내는 종정직 사임 통고문 등에서 성철 스님이 남긴 일상생활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날 봉훈관과 함께 성철 스님의 처소였던 고심당(苦心堂)도 공개해 주목을 끌었다. 고심(苦心)이란 자신의 본성을 바로 보려는 의미로 성철 스님이 자주 사용했다. 빼곡한 책, 낡은 책상과 탁자, 밧고룻까지 정돈돼 있어 당시 스님의 생활이 보는 듯하다. 해월정사를 방문한 불자들에게는 생전 스님을 친견한 듯 감동을 안겨준다.

이날 참석한 변미리 불자 51·연제구 연산동은 “성철 스님의 높은 가르침이 가을 향기에 실려 오는 듯하다”며 “마음에 스님의 가르침을 새겨 잊지 않도록 자주 찾아뵙고 정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불모산영산재보존회가 영산재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시연하고 있다.

## 동명불원 '영산대재' 봉행

### 창건주 기일 기념 행사 마련

10월 28일 부산 동명불원(주) 지 정산은 창건주 강석진 회장의 기일을 맞아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동명 강석진 회장은 1907년 경북 청도에서 출생하여 부산 범일동에서 동명복재 상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수출왕으로 선정되는 등 탁월한 경영 발전을 이룩했다. 수행도량 동명불원, 금련사, **하성미 기자**

### 진해 호국사를 장건하고 BBS 화관 건립, 팔각회 창립, 동명문화원 설립 등 후학 양성에 힘썼다.

영산대재는 경상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어 있는 불모산영산재보존회가 주도했으며 '1일 권공(權公) 3일 영산(靈山)'이라는 말에서 보듯 3일 동안 거행되던 의식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했다. **하성미 기자**

## 신작 '대발해'와 함께 정토회 찾아온 김홍신 작가

## “법륜 스님 덕에 발해공정 작심”

“내 영혼에 박힌 작은 씨앗의 싹을 틔운 분은 저의 정신적 스승 법륜 스님이었습니다. ‘발해를 우리 민족사에 남기는 것이 국회의원 열 번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30년 뒤의 대한민국을 예견하는 지혜를 얻으라’는 스승의 회초리에 나는 마침내 발해공정(渤海工程)을 작심했습니다.” 민족사를 밝힌 대하소설 <대발해>의 대장정을 마친 김홍신 작가(사진)가 소설 서문을 통해 남긴 집필 동기이다.

서문을 통해 법륜 스님과의 인연을 밝혔던 김홍신 작가가 부산 해운대 정토회 법당에서 법륜 스님을 만났다. 10월 31일 해운대 정토회에서 주최한 ‘작가와와 만남’에서다. 정토회에서 활동하는 봉사자 100여 명도 참가해 김홍신씨의 집필담을 들었다.

소설 <인간시장>으로 유명한 작가 김홍신씨는 “소설 <대발해>를 통해 한국 민족사의 위대함과 숭엄함을 증명하고자 노력했다”며 “집필 도중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든 작업이었지만 한국인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리고 싶었다”고 집필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소설 <대발해>는 668년 고구려 멸망부터 698년 고구려 유장 대조



영이 세운 발해가 926년 멸망하기까지 발해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실증 자료를 토대로 사실에 입각해 서술한 대하소설이다.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소설은 김홍신 작가가 8년에 걸쳐 1만2000매 원고를 만년필로 직접 써가며 집필한 것이다.

“발해의 역사를 찾아 복원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진실 되게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홍신 작가는 1947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논산에서 성장하고 건국대 국문과 졸업 후 동 대학원 문학박사와 명예정치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1년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 장편소설 <인간시장>은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사랑받고 있다. 제15·16대 국회의원으로 8년 동안 활동하고 현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 부산 흥법사에 첫 ‘마을상좌’ 탄생

### 신도 자녀 중 청소년 10명 선발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첫 마을상좌 10명과 울버른 숲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에서 ‘마을상좌’가 탄생했다. 10월 28일 열린 ‘마을상좌’ 수계식에서 금정중학교 1학년 이태정군은 ‘흥법사 마을상좌 1기’ 보임 사형으로 거듭났다. 그동안 종립 금정중학교 법당에서 108배 절 수행 및 기도를 통해 부처님 법을 공부했다는 보임은 앞으로 불교 건축과 현대 건축을 아우르는 세계 제일의 건축설계사를 꿈꾸고 있다.

공덕초등학교 3학년 김보현(무애심)양. 얼굴에 옛날 불살이 통통하게 남아 웃는 모습이 마을 상좌 중 막내답게 무척이나 귀하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매일 법당을 찾은 무애심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매일 기도를 올리는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미래에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니 화가도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그림을 그려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무애심의 성향을 지켜보며 함께 자라날 10명의 상좌들이 흥법사에서 선정됐다.

“마을상좌”는 유발상좌(南髮上坐)의 의미로 출가하지 않고 스님을 은사로 모셔 직접 가르침을 받는 제자. 흥법사는 신도 자녀 중 10명의 청소년을 선발해 ‘마을상좌’로 삼았다. 가족의 동의하에서 면담 시간을 가진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해 상좌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10명의 마을상좌들은 앞으로 정기 합숙을 통한 수행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은사스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공부 해나갈 계획이다.

심산 스님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되 노력을 기우려야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마음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며 “면담 시간에 말했던 여러분들의 소원과 발원들을 잊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흥법사는 앞으로 청소년 상담소 및 교육연구를 위해 지원하고 장학금 및 해외 청소년교사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10일간 참선·사경·108배로 참회 정진해온 내원정사 대종들.

## 부산 내원정사 창건기념 열흘간 참회대회 개최

“열린 출구는 단 하나 밖에 없다. 네 속으로 파고 들어가라.”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던 독일의 젊은이에게 전했던 풍자소설가 에리히 케스트너의 말이다. 인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불교는 무엇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과거의 업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할 참회의 시간을 마련하여 선을 행하고 자정의 시간을 더욱 가져야 합니다. 지금이 오히

려 기회입니다.” 창건기념 참회대회를 개최한 부산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은 “참회하고 정진하는 것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며 부처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내원정사가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 동안 매일 참선, 사경 및 108배로 정진하며 자정을 추구하는 법석을 열었다.

“정련 스님은 ‘한 불자, 한 사찰,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참회의 물결이 불교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며 하심과 기부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다. **하성미 기자**

## 대한불교미타종 제8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및 창종조 월공당 벽암대종사 탄신 93주년 기념법회에 대한 인사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0월 17일 제8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및 창종조 월공당 벽암대종사 탄신 93주년 기념법회를 대한불교미타종 총본산 봉암사에서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 마다않고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큰스님들과 제방 여러 스님, 그리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종도 여러분, 화환과 축전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먼저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기 2551(2007)년 10월 25일

**재단법인 대한불교미타종 총무원 총무원장 옹 호 회 암 합 장**